

수술 하지 않은 증상담석증 환자에서 증상 재발에 담낭 기능이 미치는 영향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학 교실

홍성노*, 이종균, 이규택, 이풍렬, 고광철, 김재준, 백승운, 유병철, 이종철

연구 배경 : 증상담석증 환자에서 담도통은 첫 증상 발현 후 반수 이상의 환자에서 재발되며, 담석으로 인한 담도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 매년 1~2%가량 증가하여 복강경 등을 이용한 수술적 담낭 절제가 치료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령과 동반질환 등으로 수술 위험성이 높거나 환자의 의지에 따라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 중 일부에서는 수년이 경과하여도 증상의 재발을 비롯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적 수술 금기증을 가지고 있거나 환자가 수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재발 여부를 예측 할 수 있는 인자가 있다면 수술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에 연자 등은 증상담석증의 재발에 관련되리라 생각되는 인자들, 특히 담낭 기능이 증상 재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전형적인 담도통과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석이 확인되어 증상 담석증으로 진단받았으나 수술하지 않은 환자들 중 간담도 스캔을 시행하고 12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으며, 진단 당시 급성담낭염, 급성담도염, 급성췌장염 또는 총수담관석이 없었던 22예를 대상으로 나이, 성별, body mass index, 진단 전에 발생했던 담도통의 횟수, 담석의 개수와 크기, UDCA 사용 여부, 혈중 cholesterol치, triglyceride치, glucose 치, 거부 사유 및 간담도 스캔 결과와 증상 재발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 : 총 22예의 대상 환자(평균연령 49.3±12.6세, 남:여 = 10:12)의 추적 관찰 기간은 12~37개월이었으며, 10명의 환자에서 증상이 재발되었다. 증상 재발과 연관된 인자 중 단변량 분석상 간담도 스캔 결과와 증상 재발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다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 : 증상담석증 환자에서 담낭 기능의 평가가 증상 재발의 예측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있으므로,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피경간담도내시경으로 확인된 원발성 간내담석환자에서

MRCP(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의 유용성 및 제한점

박도현*, 김명환, 이상수, 이성구, 이현주, 이윤정, 송혜경, 서동완, 김아영¹, 김태경¹, 민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 내과학 교실, 방사선과학 교실¹

배경 및 목적: 원발성 간내담석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담석의 위치와 협착의 동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임상에서는 ERCP나 PTC를 활용하였다. 현재 MRCP는 ERCP의 진단적 역할을 급속히 대체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비 침습적 검사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자들은 술전 검사로써 간내담석 및 담도협착의 위치 파악에 가장 정확한 검사인 경피경간 담도내시경 성적을 MRCP의 결과와 비교하여 MRCP 유용성과 제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00년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서울 아산병원에 내원하여 MRCP와 PTCS를 시행한 66명의 원발성 간내 담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성별은 남자가 31명, 여자가 3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5.8세였다. MRCP의 간내 담석의 진단과 협착의 민감도 및 특이도를 경피경간적 담도 내시경의 결과와 비교하여 SPSS for Windows(versio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적: 간내 담석환자에서 전반적인 MRCP의 담석 진단율의 민감도는 83.3%였으며 협착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2.3%, 56.2%였다. MRCP를 분절별로 경피경간적 담도내시경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는 담석의 진단에 대한 민감도는 다른 분절에 비해 segment 1과 left medial, right anterior위치의 담석은 각각 38.4%, 44.4%로 낮은 민감도를 보였다. pneumobilia가 있는 18명 환자의 경우 간내 담석 진단에 있어 MRCP는 left lateral 분절에 있는 경우에서 pneumobilia가 없는 경우보다 담석 진단에 있어 낮은 민감도를 보였다.(50% CI19.9~80.9, 95% CI73~99.7)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MRCP가 전반적인 간내 담석의 유무 및 협착의 진단에는 유용하나 pneumobilia가 있는 경우 담석 진단에 위양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분절별 간내 담석 진단에서도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부위가 있어 MRCP가 원발성 간내 담석 진단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